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 세 가지가 있다. 불구경, 싸움 구경, 그리고 사람 구경이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나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도 그렇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치롭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속담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애간장이 다 타들어갈 것 아닌가. 하지만 강물이 가로막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남의 집이야 다 타든 말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 구경도 의외로 재미있다. 총장로 '우다방' 앞이나 번잡한 시장통에 나가서 조금만 지켜보면 알 것이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늙은 남자, 젊은 여자. 같은 여자라도 가슴이 수박 덩이처럼 큰 여자, 꼬막 겹데기 얹어 놓은 것처럼 맛있는 여자. 생긴 것도 가지가지, 옷차림도 각각각색이다. 할 일 없는 이들의 '시간 때우기'로 사람 구경 만큼 딱인 게 어디 있을까.

불구경 다음으로 재미있다는 싸움 구경도 일단 나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이겨도 좋고 누가 지더라도 상관없다. 기왕에 벌인 싸움이라면 피 터지게 치고받는 싸움이 볼 만하다.

심심하던 차에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요즘 살맛 난다. 야당

도 싸우고 야당도 싸운다. 예전엔 야당과 야당이 싸우더니, 지금은 야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한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잘도 싸운다.

이래저래 온통 싸움판이니 구경하는 입장에선 마냥 신날 수밖에. 야당은 친노(친 노무현)와 비노(非盧)로 나누어 싸우고, 여당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非朴)으로 갈라져 싸운다. 한 배를 탔으니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헤쳐 나가자던 풍우동주(風雨同舟)의 허튼 맹세는 간 데 없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각자도생(各自逃生)만 씩씩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인 듯하다.

친박 비박 간 박 터지는 싸움

홍부내 집도 아닐진대 무슨 박들은 또 그렇게 주렁주렁 열렸는지. 원박(원조 친박), 탈박(탈출한 친박), 돌박(돌출했다가 돌아온 친박), 팔박(바른 말 해서 잘린 친박), 말박(말어진 친박), 신박(새로운 친박), 월박(넘어온 친박), 그리고 비박까지.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진 박들이 온통 '박'의 눈치를 살피며 박 터지게 싸우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싸움이란 본시 한쪽이 너무 강하면 이뤄지지 않는 법. 다소 힘에 부치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최소한의 자신감이 있어야 할 터. 그렇

긴 하지만 세상에 제 힘만 믿고 해보지도 못할 상대에게 함부로 담비는 이 또한 더러 없지 않다.

사마귀란 놈이 딱 그 짝이다. 어렸을 적 풀밭에서 보았던, 두 발을 꿰뚫어 치켜든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란! 그때 녀석을 마주치기도 할라치면 잔뜩 겁을 먹고 달아나던 '기집애'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옛 기억을 더듬다 보니 문득 '당랑거찰'(螳螂拒螻)의 고사(故事)도 생각한다. 한 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사마귀 '당'(螳)에 사마귀 '랑'(螂), 막을 '거'(拒)에 바퀴자국 '찰'(轍).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섰다'는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다.

제(齊)나라의 장공(莊公)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 수레바퀴로 달려들더라. 장공이 부하에게 "저 놈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으니 "예, 저것은 사마귀인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며 제 힘은 생각지 않고 한결 같이 적에 대항하는 놈입니다." 장공이 이 말을 듣고 "이 별레가 만약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용사였을 것이다" 하더니 그 용기에 감탄하여 사마귀를 피해 수레를 돌려서 가게 했다는 거다.

대표적인 친박이었다가 어느 날 팔박이 되더니, 이제 까딱하면 '피박' '광박'에 '독박'

까지 쓰게 될 처지에 몰린 유승민 원내대표. 그의 신세가 지금 '수레 앞의 사마귀' 꼴이 됐으니 좀 전까지 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제나라의 장공과는 달리 수레를 비껴 나가는 커녕 갈아뿔겅 것처럼 사나운 기세이니. 그도 그럴 것이 사석도 아닌 공개석상에서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것이 바로 대통령 아니었던가.

누가 누굴 배신했다는 건가

중중 임금이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을 통해 한때 그렇게 총애했던 조광조를 내쳤듯이, 박 대통령도 한때는 그렇게 가까이했던 그를 내치려 하고 있다. 정치적 목숨이 위태로워진 유 원내대표는 일단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게 어디 진실일 리 있겠나. 아마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사였겠지.

이제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거부권 정국은 여러 내부의 치열한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 한마디로 공천권 때문이다. 친박 의원들은 김부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비박 지도부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 세력 물갈이에 나설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들처럼 이들이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박 대통령의 서릿발 같은 공개 경고도 있었지만,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은 그래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많은 친박 의원들이 찬성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레 놓고 뒤늦게 모든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배신 아닌가. 이쯤 되면 누가 배신자인지 헷갈릴 법하다.

어찌 됐든 작금의 친박과 비박 간 싸움은 도(度)를 훨씬 넘어선 모습이다. 우리처럼 도(道)가 트인 사람이야 그저 싸움 구경에 신이 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이진투구(泥田鬪狗)에 신물이 난다며 진저리를 친다. 그 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마지막 여유를 모시듯이 오로지 딱 한 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계속해서 아우다옹할 거라면, 차제(此際)에 차라리 갈라서라.

참음이 이미 돌아섰는데도 함께 사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빨리 결별하라는 것이다. 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말이다. 친박과 비박이 갈라지고, 친노와 비노가 단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질 것이니, 아 아니 좋은 일인가.

광주시민 네팔 선수단 돕는다

지진구호활동 희망나무·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임승진 서포터즈 단장 등과 함께 유니폼 지원

패셔로 변한 조국에 희망을 선사하러 왔지만 체류비는 물론 선수단 유니폼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네팔 선수단 소식(광주일보 2일자 2면)이 알려지자 후원과 성원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네팔 서포터즈 단장을 맡고 있는 임승진(57) 치과의원 원장과 지난 4월 네팔 대지진 참사 현장에 3차례에 걸쳐 긴급 구호 의료활동을 다녀온 (사)희망나무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 등이 각 1백만원씩의 성금을 모아 선수단(선수 22명·임원 19명) 유니폼 문제를 해결했다.

애초 임원장이 한국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네팔 양궁과 태권도팀의 유니폼 비용을 후원하겠다고 가장 먼저 알려졌다. 여기에 지진 피해 구호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전대·조대병원과 (사)

희망나무 등의 의료기관과 단체들이 힘을 합치면서 네팔 선수단들이 우여곡절 끝에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선수단 유니폼 비용 외에 남은 금액은 선수단의 체류비용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임승진 원장은 "네팔은 한국과 광주 산악인들에게 인연이 깊은 나라인데다 많은 산악인들이 네팔인들의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선수단 소식을 듣고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네팔 대지진 참사 현장에 긴급 의료구호활동을 다녀온 전남대병원과 (사)희망나무 측은 네팔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응원단도 결성하기로 했다. 전대병원 측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3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네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도 펼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서포터즈단은 한글과 네팔어로 쓰인 '힘내세요, 네팔!' 등의 응원 플래카드도 이미 만들었고 경기가 열리는 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네팔에 광주진료소가 생길 예정이어서 네팔과의 인연을 잘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팔 선수단 관계자는 "후원량도 부족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성원과 슬픔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라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당국은 지진 피해를 복구하느라 광주 U대회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에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2일 입국한 선수들 가운데엔 자비를 들여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가 하면 양궁팀은 출국 하루 전날에야 활과 화살을 겨우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별취재팀=김형호기자 khh@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U대회 독일선수단 버스에 올려퍼진 '아리랑'

환벽당·소쇄원 등 팸투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단 팸투어에 참가한 독일 선수들은 환벽당(環碧堂)에서 배운 '아리랑'의 흥이 가시질 않는 지 버스 안에서 '아리랑'을 이어 불렀다.

2일 광주U대회 선수단 팸투어가 진행된 첫날 독일 유도 선수단 19명은 이날 선수촌을 출발해 광주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을 찾았다. 독일 선수들은 시원한 그늘아래 생선 처음 접하는 정자(亭子)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다.

가야금과 다도체험을 위해 '양반다리'를 시도하던 몇몇 선수들은 이내 포기한 채 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와 선선한 바람을 즐겼다.

담양 소쇄원으로 이동해서는 대나무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았다. 선수들은 "독일에서는 이렇게 길게 뻗은 대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신기하다고 말했다.

오전 일정을 마친 뒤 황포돛배 체험을 위해 나주에 도착한 선수들은 자진해 영산포 '흥어의 거리'를 둘러보겠다고 나섰다. 일부 선수들은 코를 막으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멀쩡이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다.



2일 나주시 영산포에서 황포돛배 체험에 나선 독일 유도 선수단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특별취재팀=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흥어의 향을 직접 맡기 위해 흥어 전문점에 들러간 선수들은 "먹어봐야 진짜 향을 알지"라며 선뜻 흥어회를 내주는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흥어 맛을 접하는 기회도 얻었다.

난생 처음으로 흥어 시식에 나선 한 선수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또 다른 선수는 흥어 맛을 '익사iting'(exciting)하다고 표현하는 등 '남도 문화'를 직접 느끼는데 스텝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황포돛배에 올라서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나주시립국악단 단원들의 모습에 반한 듯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독일 니케(여·22) 선수는 "기품있고 깨끗한 남도의 문화와 경관에 흠뻑 매료됐다"며 "오는 4일 시험이 시작돼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꼭 다시 한번 팸투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기용기자 pboxer@

本社人事

▶기현호: 서울지사 광고영업본부장 (7월 3일자)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교구 70m 해나로빌딩 B10 6층

02) 521-4405

호남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농성공무원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량, 커피전문점, 식당 차량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장성군 북이면 백양사 IC인접 친환경농산물 전문공장 교통입지우수 기계설비완비

대지 9341㎡ 건물 2031㎡
NPL 가능, 2011년 신축
감정가 41억 4천
최저가 14억 9천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천

지하1층~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5천
최저가 5억 9천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근린건물 아파트단지외 단독주택 상권 식당입점 추천

4층건물 1층 주차장
대지 499㎡ 건물 912㎡
감정가 11억 9천 8백
최저가 8억 3천 8백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